

역사의 소용돌이와 인간의 나약함

처음으로 번역 소개되는 '밀란 쿤데라'

밀란 쿤데라, 그는 누구인가

작년도 노벨문학상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련의 망명시인 브로드스키에게 돌아갔다. 일반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편은 아니었던 이 시인은 유럽을 여행하다 수상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말로 장식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賞이 올해 밀란 쿤데라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스키 못지않게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생소한 이름인 밀란 쿤데라. 지난 몇년동안 노벨문학상 최종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이 작가는 누구이며, 어떤 작품을 썼기에 세계문단의 경탄과 주목을 받고 있는가. 최근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생은 다른 곳에」(안정효 옮김, 까치)가 번역·출간된데 이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송동준 옮김, 민음사)이 곧 점두에 선을 보일 예정으로 있어 쿤데라는 이제 더이상 미지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극화한 영화 역시 개봉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쿤데라 붐을 예상케 하고 있다.

쿤데라는 우리로서는 낯설 수밖에 없는 동구권 작가.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뤼에서 음대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했고, 한때 영화아카데미 AMU에서 조교로 활동하기도 했다. 시·소설·드라마 등 여러 장르에서 뛰어난 작품을 발표한 그는 불문학 번역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75년 프랑스로 이주, 현재 파리에 거주하면서 작품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시집 「마지막 오월」 「독백」, 단편집 「우스꽝스런 관계」, 장편 「농담」 「생은 다른 곳에」 「작별의 왈츠」 「웃음과 망각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을 발표한 그는 공산주의사회와 자본주의사회를 넘나든 그의 이력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독특한 작품세계를 지닌 작가. 그는 공산국가 문학의 공식강령인 사회주의리얼리즘을 거부하고 소설의 문체나 구성, 인물의 성격창조 등에 있어서 상당히 과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생은 다른 곳에」를 번역한 안정효씨는 그의 문체를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 비유하고 있는데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 환상과 아이러니가 섬세하게 교차하며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그의 소설은 높은 문학적 성취를 거두었으

체코가 낳은 세계적 작가 밀란 쿤데라.

최근 그의 대표작 「생은 다른 곳에」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차례로

소개됨으로써 동구권문학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삶의 비극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독특한 문체와 구성에 담은

그의 작품은 우리 현실과 비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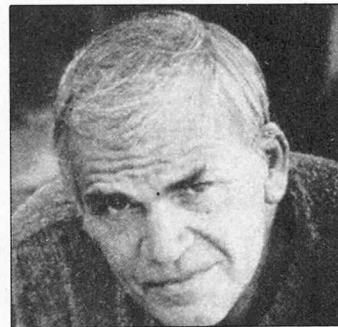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면서도 소설이 가진 본래의 재미를 잃지 않아서 독자로서도 흥미롭고 엄숙한 주제를 아주 경쾌하게, 그러나 생각에 잠겨 읽도록 만드는 힘을 지녔다.

'혁명적 낭만주의'에 대한 풍자

쿤데라의 소설의 무대는 그가 태어나서 자란 체코. 그는 격동에 가득찼던 이 나라의 최근세사를,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유하던 인간군상을 작품 속에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다. 「생은 다른 곳에」는 이차대전이 끝나고 중부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68년의 유명한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어서 일면적인 판단을 허용치 않는다. 그는 공산권의 공식적 교조적 관점을 거부하는 한편 서방측의 시각 역시 왜곡되고 편향된 면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주로 관심을 보내는 것은 역사적 폭풍 속에 휘말린 지식인의 심리와 행동양태이다. 그는 현실과 이념에 의해 철저히 배반당하는 인간 개개인의 실상을 '현기증나게' 보여준다.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빌린다면 "역사가 인간에게 가까이 올 때 사회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을 때로는 회화적으로 때로는 침통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생은 다른 곳에」는 한마디로 '혁명의 낭만성에 대한 날카롭고도 무자비한 풍자'(타임즈)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야로밀이라는 시를 지망하는 문학청년. 실패한 결혼을 아들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어머니의 과잉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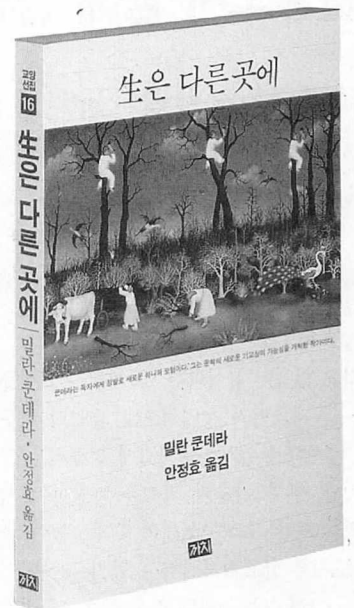


정과 브르조아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묘한 모순과 혼돈에 직면한다. 우리의 현실을 연상시키는 화염병과 대자보, 시위, 스승 모독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와중에서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열정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엉뚱한 희극일 뿐이다. 작가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군대와 경찰의 보호 아래 실천된 사이비 혁명」이라고 부른 당시 상황 속에서 젊은 행동대원들은 잠시 이용만 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명령을 받는 것이다.

「생은 다른 곳에」라는 제목은 바로 이 혁명적 낭만주의가 내거는 슬로건 중의 하나이다. 랭보가 쓴 이 구절은 앙드레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결론으로 인용했으며, 68년 5월 프랑학생운동 때 소르본대학 담벼락에 찍어진 낙서이기도 하다. 모든 진정한 삶은 지금·이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그리하여 지금·이곳의 삶은 변형되어야 한다는 젊은 이상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냉혹한 현실법칙의 제물이 되는가를 이 작품은 증언한다. 민감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시인 야로밀의 짧은 생애를 통해 쿤데라는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허위인지, 젊음과 혁명과 사랑과 문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삶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한 탐구

84년 출간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작가에게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다. 파리에서 이 작품이 출간되자 「뉴욕타임즈」는 과격적으로 이 소설에 대한 극찬의 서평을 두번씩이나 게재했고 뒤이어 작가와의 인터뷰까지 실었다.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겪는 수난과 좌절,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을 담담한 필치로 펼쳐나간 이 작품은 「생은 다른 곳에」가 풍자



적이었던데 반해 상당히 사변적이다. 육체와 영혼, 집단과 개체, 삶의 의미와 무의미,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우연과 운명 등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 곳곳에서 번득인다. 아울러 소련 탱크에 의해 조국의 민주화운동이 산산이 깃발헌데 대한 작가의 억눌린 분노·환멸이 겹겹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은밀히 관류하고 있다. 의사 토마스와 그의 아내 테레사, 토마스의 정부이자 화가인 사비나, 사비나가 망명을 한 뒤 만난 남자 프란츠, 이 네명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이 작품은 역사 그 자체보다는 역사의 수면 밑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방울들에 관심의 초점을 모은다.

정치·혁명·이데올로기, 이런 무거운 것들에 비해 인간 개개인의 삶이란 얼마나 가볍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인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작가는 "러시아군 침공 후의 세월은 장래의 시기였다"고 말하면서 프라하의 봄에 대한 서방측의 관심 역시 경박한 호기심과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쿤데라 소설의 매력은 작중인물의 극히 개인적인 삶이 오늘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특히 이 작가의 남녀관계, 성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독창적이고 흥미롭다. 「생은 다른 곳에」에서 야로밀이 사춘기에 성에 눈뜨고 못생긴 여점원과 육체경험을 갖는 과정,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토마스의 여성편력과 사비나의 남성편력은 이 작품을 재미 있는 연애소설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 이외에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보스턴 글로브」지의 평은 쿤데라의 작품에 대한 최대의 찬사이자 정확한 평가로 받아들여진다. — 남진우 기자